



12월 15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모였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 마음 속에 들어와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나에 대해 가르쳐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구름이 예수님을 가려서 더 이상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한참 동안 서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때 두 천사가 그들 곁에 나타났어요.
“왜 아직도 하늘을 쳐다 보느냐? 예수님께서서는
천국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제자들은 기뻐했어요.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시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구원 받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오시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죽음도,
슬픔도, 아픔도 없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께서서는 언제 오실까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께서만 아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오실 거예요. 예수님께서서 오셨을 때,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할까요? 성경도 열심히 배우고, 기도도 하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는 모습을 예수님께서서 기대하실 거예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나요?

생각하는 아이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더 크고 넓어요.
나의 마음에 있는 사랑은 어떤가요?”

남우는 생각 했어요.

‘난 맛있는 과자는 나눠먹기 싫을 때가 있어.
남희가 미울 때도 있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기도 하는데…….’



선생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랑하세요. 욕심 많고 동생에게 화도
잘 내는 남우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세요.”
선생님의 말씀을 들은 남우는 예수님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나는 참 좋아요.”



생각하는 아이

용서는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는 거죠? 용서란, 다시는 그 사람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말하지도 않는 거예요. 용서를 하려면 미워하는 마음보다 좋아하는 마음이 커야 해요. 이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세요. 나에게 잘못은 했지만, 용서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아래에 써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내가 용서할 사람	나를 화나게 했던 일	용서했음
유치원 친구 000	자꾸 날 괴롭혀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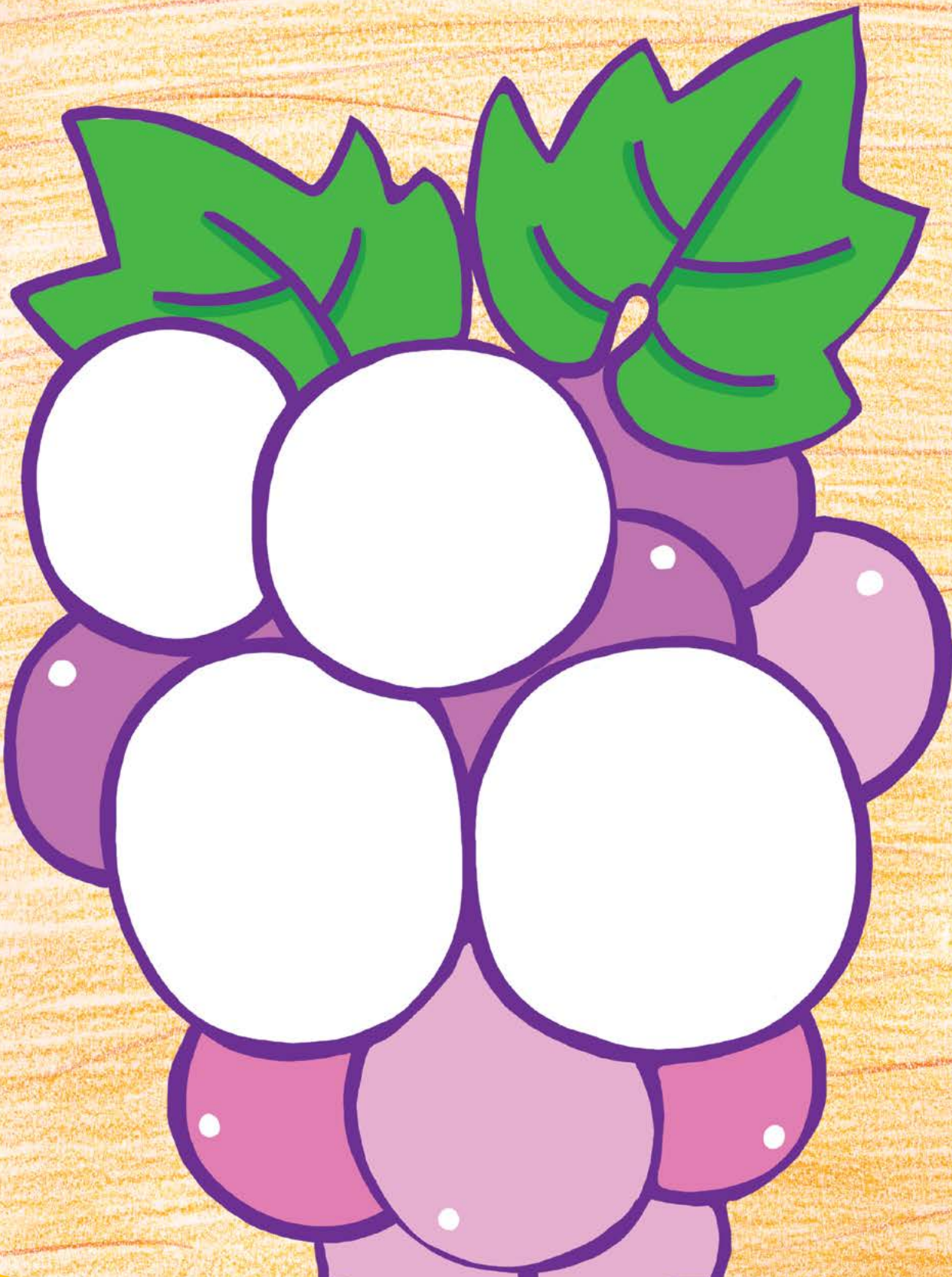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편지를 써 보세요.

즐거움 활동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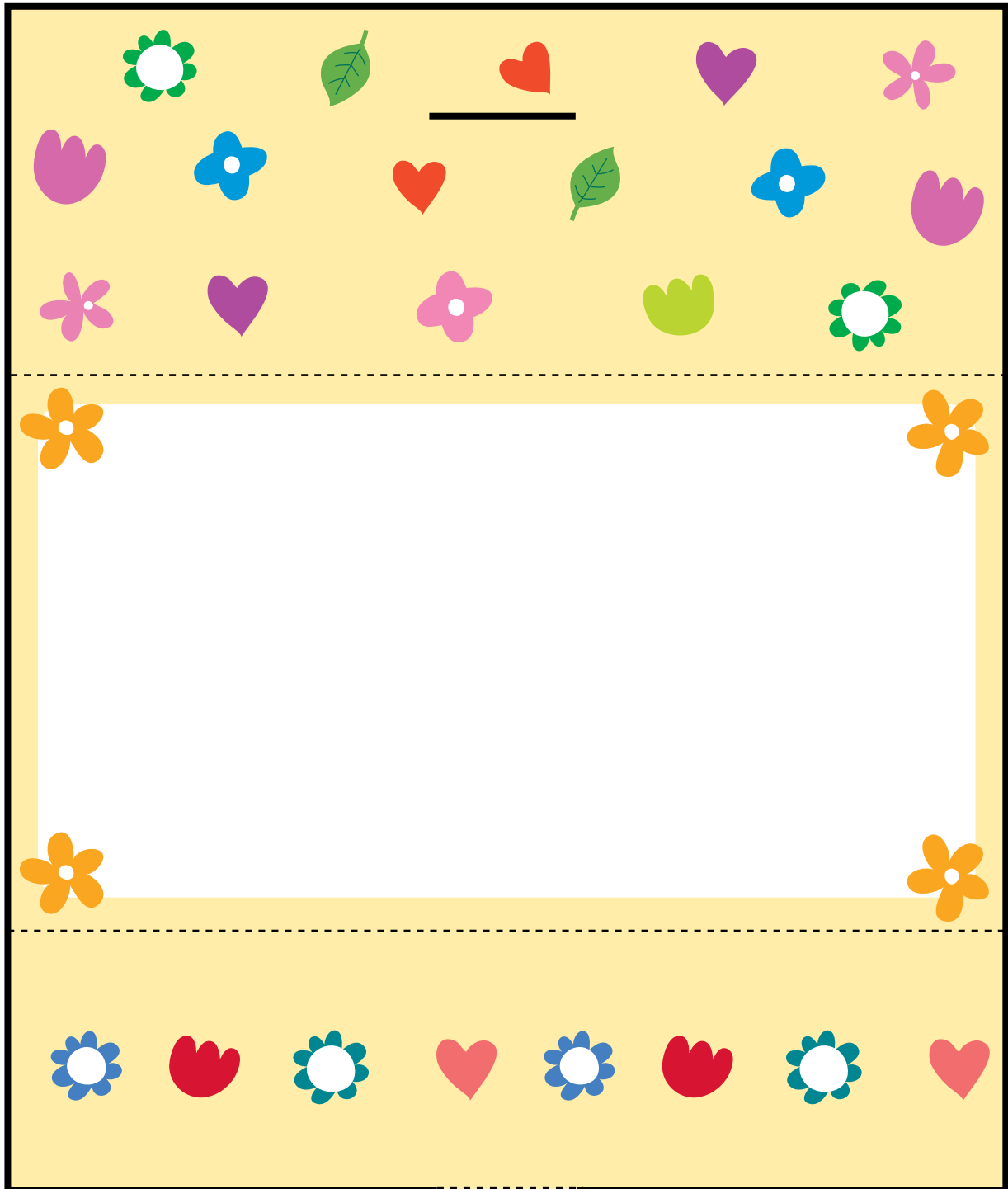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포도송이 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 보세요.



친구에게 편지 쓰기

재밌는 만들기

*만드는 방법은 뒷면에 있습니다.





① 편지를 오려서 선생님께 편지를 쓰세요.

② 가운데 실선을 칼로 오리고  을 넣어서 고정시키세요.

자 르 는 선 _____

접 는 선 - - - - -





마음속 암송

따라 쓰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다시 쓰기

선생님께

부모님께